

지역 매아리

정읍신문화제 제전위원회

오늘부터 '부도상' 후보자 접수

제30회 정읍신문화제가 오는 9월 28일부터 이틀간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정읍사 공민 일원에서 열린다.

이에 앞서 (사)정읍신문화제 제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14일까지 부도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있는 지로 사회적·교육적으로 귀감이 되는 부도(婦道, 부모공경, 가정화목, 다복, 헌신)를 갖춘 여성이다.

희망자는 읍·면·동장이나 가난단체장, 또는 봉사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사)정읍신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제전위원회는 서류심사와 심사위원의 현장실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9월 28일 제30회 정읍신문화제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신문화제 제전위원회 홈페이지(www.jnf.or.kr)를 참고하거나 정읍신문화제 제전위원회 사무실(☎ 532-888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수돗물 절감 위해

소형 빗물 이용 시설 지원

정읍시가 물 순환 녹색도시 만들기 예산을 늘려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확대 지원한다. 물 순환 체계를 회복시키고 기후변화와 물 부족 현상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수돗물 사용을 절약하고 물의 소중함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소형 빗물 이용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소형 빗물 이용 시설'은 건물의 지붕과 벽면 등에서 빗물을 모아 간단히 여과시킨 뒤 고도의 정수가 필요하지 않은 조경이나 청소, 화장실 용수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지원 대상 시설은 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공동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청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조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개소당 담수 용량 2톤을 기준으로 최대 450만원(자부담 5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와 공동주택은 1개소당 담수 용량 5톤 기준 최대 630만원(자부담 7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심사를 한 후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 빗물 이용 시설은 버려지는 빗물의 재이용을 통한 물 부족 해소와 수돗물 절약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물 순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시와 지역 8개 지역 농협이 손을 맞잡았다.

농가소득 향상 적극 모색

정읍시·8개 지역 농협, 농업 발전 위해 손 맞잡아

정읍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시와 지역 8개 지역 농협이 손을 맞잡았다. 이는 스마트한 농생명 도시건설의 일환으로 행정과 각 농협이 하나로 뭉쳐 지역농업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

관련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농업부와 지역 내 농협 8개 조합장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3차례 만남을 이어왔다.

지난 11일에는 시와 농협간의 정읍 농업발전 현안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권역별 칠보농협 농협장은

각 농협에서 발굴한 16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진식 시장은 행정과 농협 실무자들이 모여 구체적인 사업검토와 추진 방향을 설정토록 했다. 이어 17일에는 행정과 농협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무추진위원회를 열었다. 시는 농협 실무자들로부터 제안된 16개 사업의 타당성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협력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농업인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제한된 안건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농협이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협과 농업인 다수가 누리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발굴해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시와 8개 지역 농협이 참여하는 지자체 협력사업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이, 위원으로 각 주무팀장과 농협 경제본부장이 활동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고품질 지역농산물 생산·유통 업무협약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23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지역농산물 안정적 생산·유통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 전문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신순식 부안중앙농협 조합장, 양재룡 부안조공 대표, 입장식 부안 마케팅 대표, 김진춘 수박공선회 대표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지역농산물 생산·유통에 대한 상생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부안군과 농협, 전문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품질 관리,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 판로 개척, 지역농산물 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가 더욱 중요



부안군이 지난 23일 부안군청에서 고품질 지역농산물 안정적 생산·유통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 전문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농민은 오로지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조직은 농산물 유통·판매에 집중함으로써 농민에게는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역농산물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판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산지유통시설(APC) 공모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업인의 소득 증진 및 농산물 판매 확대, 통합마케팅 활성화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의 건강을 담아'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오픈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이사장 유기상)가 전북 고창군의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고건담쇼핑몰(http://gogundammall.co.kr)을 개설했다.

연구소는 고창군 농특산물 통합쇼핑몰인 '고건담'의 활성화를 위해 배리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고창군 소재 청맥(주)을 비롯한 11개 업체를 1차 오픈 참여 업체로 선정했다.

'고건담'은 '고창의 건강을 담다'의 줄임말로, 고창군 농특산물을 통해 '건강한 식품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탄생했다. 고건담 쇼핑물은 복분자, 애플스파, 바지라, 장어 등의 농·특산물은 물론 연구소와 판매업체에서 개발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연구소는 고건담 쇼핑물 구축기념 이벤트를 8월15일까지 진행한다. 회원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에 들려

댓글을 달고, SNS에 쇼핑물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과 할인쿠폰 등 다양한 상품을 준다.

한편, (재)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는 2008년 고창군 향토지원을 이용한 기업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판매 실적과 판매 수익 증대를 위해 설립됐다.

기업현장중심연구, 농가와 동반성장하는 연구소를 목표로 보다 더 나은 먹거리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소 이사장 유기상 고창군수는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판매 우수기업에서 생산하는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쇼핑물을 오픈하게 됐다"며 "고건담 쇼핑물을 통해 고창군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제품이 많이 판매되어 지역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새일센터 창업동아리 '상상나라', 여름캠프 개최

경력단절 여성들로 구성된 창업동아리 '상상나라(대표 문경숙)'가 '드론'과 함께하는 여름체험 캠프를 선보인다.

캠프는 오는 27일 정읍체육관에서 지역 내 초·중·고생 10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캠프에서는 드론 드라이브킷과 드론 장애물 경기, 항공모형 만들기, 업사이클링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상상나라'는 2018년 전라북도 공모 직업교육훈련 '항공드론 전문지도사' 교육생을 주축으로 결성

했다. 교육생들은 수료 후 공동체 창업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상상나라는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의 지원을 받아 드론전문가로서의 소양과 기술 연마 등을 다지고 있다.

공동체활성화센터의 공모에 당선된 후 회원들의 역량 향상과 지역 사회 홍보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또 회원들은 드론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해 드론 국가자격증에 도전하고 있다. 현재 2명이 취득했고 3명이 준비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폭염 속 고추수확 봉사활동 현장 격려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기상 고창군수가 영농현장을 찾아 농민들과 일손돕기 봉사단을 격려했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가 해리면의 한 농가를 찾아 폭염 속에서 수확을 하며 고추 수확에 나선 농민과 일손봉사단(해리면 체육회, 해동 농약단)을 격려했다.

유기상 군수는 "이따른 장마와 무더위에 병충해가 걱정된다"며 "정성껏 기른 명품 고추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병충해 방제와 작기 수확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유기상 군수는 해리면 관내의 무더위 쉼터를 찾아 폭염대책 상황을

점검했다. 고창군은 616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마을곳곳에 운영하면서 냉방비 지원, 폭염 생필품 배부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 야외활동 자제 등 군민행동요령 준수하고 주변 어르신 건강살피기 및 안부전화하기를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유기상 군수는 해리면사무소에서 이동군청을 열며 주민 생활 불편사항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등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너머로 놓고 정성스레 빛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음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호** | 750ml 1ea/12% |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호** | 375ml 5ea/13% | **GIFT SET 6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호** | 375ml 2ea/13% | TEL: 063-584-9960 www.ganganwine.com